

“흑수저 vs 백수저” 계급 서사의 세계화 -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1을 중심으로

양진문*

1. K-콘텐츠의 계급 서사와 정동 정치
2. 계급 서사, 정동, K-콘텐츠 세계화
 - 2-1. 계급 서사·언터독 내러티브와 정동 정치
 - 2-2. K-콘텐츠 세계화와 플랫폼 환경
3. “흑수저 vs 백수저” 서사의 구조와 정동
 - 3-1. 흑/백 이분법과 공정성 경쟁 포맷
 - 3-2. 감동 서사와 정동 재배열: ‘계급을 넘어선 인간 존엄’
4. K-콘텐츠 전략으로서의 세계화: 플랫폼·번역·수용
 - 4-1. 한국적 계급 감수성과 넷플릭스 플랫폼
 - 4-2. 글로벌 수용과 K-콘텐츠 브랜드화
5. 계급서사를 매개로 한 K-콘텐츠 세계화 전략과 향후 전망

국문초록

본 연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1을 대상으로,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계급 서사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떠한 정동(affect)의 정치와 결합하여 K-콘텐츠의 세계화 전략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 에피소드를 1차 텍스트로 삼고, 제작진·출연자 인터뷰 기사, 홍보 영상과 포스터, 플랫폼 내 소개 문구와 카테고리 배치, 유튜브 클립 및 SNS 공식 계정의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파라텍스트

* 바른국어 연구소장 /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를 함께 검토하는 서사 분석·담론 분석·플랫폼 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는 제목을 넘어 출연자 설정·시각 대비·주방 공간·언어·미션/평가 규칙을 관통하는 기호 체계로 작동하며, 출발선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경쟁의 긴장과 감정 몰입을 증폭한다. 그러나 서사는 구조 비판보다 언더독 성장과 '노력=존중'의 감동 윤리로 환원되고, 갈등은 동료애와 '계급을 넘어선 인간 존엄' 메시지로 봉합돼 계급 현실을 탈정치화한다. 넷플릭스의 카테고리·썸네일·소개문구·번역/현지화는 이를 글로벌 요리 서바이벌 포맷으로 재구성해 K-계급 서사/예능 브랜드로 포지셔닝한다.

결국, 로컬한 계급 담론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회로 속에서 어떻게 상품화·탈맥락화되는지, 그리고 감정 동원과 공정성 담론을 매개로 어떤 탈정치화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계급 서사, 정동, 플랫폼 구조를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분석 틀을 제안함으로써, K-콘텐츠 연구에서 계급·정동·플랫폼을 결합하는 후속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계급 서사, 정동의 정치, K-콘텐츠 세계화, 플랫폼 자본주의)

1. K-콘텐츠의 계급 서사와 정동 정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어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계급 격차를 응축하여 드러내는 사회적 기표로 기능하고 있다. 이 담론은 교육, 노동, 주거, 결혼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무력감과 분노, 체념과 냉소를 동시에 담아내며, 한국 사회의 계급 현실을 은유적이면서도 직설적

으로 표상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도로 로컬한 감수성이 K-드라마·K-예능·K-팝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점차 번역 가능하고 소비 가능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¹⁾ 다시 말해, ‘흑수저 vs 백수저’는 더 이상 한국 내부의 자기 진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해 수출되는 하나의 서사적 장치이자 감정 코드로 변모하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1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텍스트이다. 이 프로그램은 ‘흑수저’와 ‘백수저’라는 계급 메타포를 전면에 내세워 요리 서바이벌의 경쟁 구조를 설계하면서도,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배급된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적 계급 담론에 뿌리내린 로컬한 설정이지만, 실제 시청 경험의 차원에서는 언더독의 도전, 공정한 경쟁, 인간 승리라는 보편적인 감동 서사로 재조율되며 세계 시장을 향해 번역된다.²⁾ 이 과정에서 계급 서사는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국적 맥락과 분리되어 K-콘텐츠 세계화 전략의 일부로 재배치되는가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서바이벌 예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가창·퍼포먼스 중심 오디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 서사의 구조와 ‘공정성’ 담론의 결합 방식을 분석해 왔다. 이들 연구는 심사위원의 언어와 편집 전략, 공개 투표와 심사 기준의 언표화, 참가자의 자기 고백 등이 신자유주

1) ‘수저 계급론’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계급 격차를 응축해 드러내는 기표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로컬한 계급 감수성이 K-드라마·K-예능·K-팝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과정에서 번역 가능하고 소비 가능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조돈문, 『불평등 이데올로기: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한겨레출판, 2024, 356쪽.

2) 남승석·한예진, 「K-콘텐츠, 서바이벌 오디션 예능의 경쟁 서사와 공정성 환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33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123-160쪽.

의적 능력주의와 자기계발 이데올로기를 자연화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³⁾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요리 예능에서 계급·노동·전문성의 층위가 교차하는 특수한 장(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장이 서바이벌 포맷과 결합할 때 어떠한 독자적 의미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K-콘텐츠 세계화와 플랫폼 전략을 다룬 연구들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이 한국 드라마·예능의 기획·제작·유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청자를 상정하는 글로벌 전략과 알고리즘·카테고리·자막·더빙을 둘러싼 수용 구조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 또한 대체로 드라마와 영화 장르에 집중되어 있어, 계급 서사와 서바이벌 포맷이 결합된 예능, 특히 요리 예능에 대해서는 산업·정책 차원의 개괄적 언급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계급·정동·요리 예능을 교차적으로 다룬 소수의 논의들이 음식과 미디어, 정체성의 관계, 셰프의 스타화, 파인다이닝 담론, 편의점·프랜차이즈 콜라보, 감동 서사와 휴먼 드라마 등을 조명해 왔으나, 계급 문제와 정동, 플랫폼 구조를 통합적으로 포착하기보다는 각 요소를 분절적으로 다루는 한계를 보인다.⁴⁾ 특히 “흑수저 vs 백수저”와 같이 한국 사회 특유의 계급 담론이 전면에서 부상하는 경우, 이 담론이 글로벌 시청자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번역·조정·재배치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탈정치화와 재정치가 동시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비하다.

3) 류용재·박진우,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에 침투한 신자유주의 경쟁 담론: 프로그램의 채택과 제작과정에 대한 생산자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4권 1호, 한국방송공사, 2012, 139-165쪽.

4) 나은경, 「'먹는 방송'과 '요리하는 방송' 음식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탐색: 텔레비전 먹방/쿡방 유행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뉴미디어 이용 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183-215쪽.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전제할 때, 〈흑백요리사〉 시즌1을 둘러싼 본 연구의 과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우선, 서바이벌 예능과 공정성 담론에 관한 기존 논의를 요리 예능이라는 특수한 계급·노동 공간에 적용하여, “흑수저 vs 백수저” 서사가 구성되는 구체적 장치를 텍스트 내부에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콘텐츠 세계화와 플랫폼 전략 연구에서 제기된 논점을 수용하되, 이를 개별 프로그램의 내러티브와 정동 분석과 긴밀히 결합시켜, 계급 서사의 세계화가 어떤 텍스트적·정동적 변형을 수반하는지를 드러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급·정동·요리 예능을 통합적으로 사유함으로써, 한국적 계급 감수성이 글로벌 플랫폼 자본주의의 장 속에서 어떻게 상품화되고, 동시에 어떤 균열과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1의 전 에피소드를 1차 텍스트로 삼고, 여기에 제작진 및 출연자 인터뷰 기사, 홍보 영상과 포스터, 플랫폼 내 소개 문구와 카테고리 배치, 유튜브 클립과 SNS 공식 계정의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파라텍스트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 각 에피소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미션의 구조, 흑·백 주방의 공간 배치, 출연자 소개와 서사 구성, 평가 장면과 탈락 장면의 편집 방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러티브와 정동 구조를 조직하는지에 주목한다. 분석 관점은 크게 세 층위로 나뉜다.⁵⁾ 첫째, 계급 서사 분석을 통해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이분법이 시각적·언어적 코드와 경쟁 규칙, 서사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호화·정당화·자연화되는지 밝힌다. 둘째,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참가자의 개인 서사(가난, 실패, 재도

5) 하준범·조희영,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무대와 무대 재현을 통한 OTT 예능 콘텐츠의 수용자 관계성 연구」, 『콘텐츠와산업』 제7권 5호,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57-64쪽.

전, 가족사 등)와 감정 연출, 편집 리듬과 음악·카메라 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시청자가 연민·분노·존경·카타르시스 등 특정 감정 상태로 유도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셋째,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넷플릭스가 〈흑백요리사〉 시즌1을 어떤 장르·세계관으로 분류·포지셔닝하는지, 추천 알고리즘과 글로벌 TOP10 지표, 자막·더빙·소개 문구 등의 현지화 장치가 계급 서사와 결합하여 어떠한 세계화 전략을 구성하는지 검토한다.

연구 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서사 분석, 담론 분석, 플랫폼 분석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서사 분석을 통해 에피소드 단위의 기승전결 구조, 미션 배치, 캐릭터 아크를 세밀하게 읽어내어, 언더독의 도전과 승리 서사가 어떤 단계와 장치를 통해 구성되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담론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내 대사, 자막, 인터뷰, 나레이션뿐 아니라 언론 기사와 홍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와 은유, 서술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계급을 넘어선 감동”, “인간적인 셰프”와 같은 담론이 어떻게 형성·유포되는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분석을 통해 넷플릭스의 인터페이스와 분류 체계,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지표와 시청 환경을 질적·기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흑백요리사〉가 단지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K-콘텐츠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전략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부여받는지를 밝히고자 한다.⁶⁾

요컨대 본 논문은 〈흑백요리사〉 시즌1을 단순한 요리 예능이나 일회적 흥행작으로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적 계급 감수성이 글로벌 플랫폼 자본주의와 결합하는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흑수저 vs 백수저’ 담론이 K-콘텐츠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상품화되고, 동시에 어느 지점에서 탈정치화·탈맥락화되는지를 해명함으로써, 계급·

6) 코리 바커·마이클 비아트로스키 외, 『넷플릭스의 시대: 시간과 공간, 라이프스타일을 뛰어넘는 즐거운 중독』, 임종수 역, 팬텀박스, 2019, 480쪽.

정동·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비평적 분석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계급 서사와 언더독 내러티브, 정동 이론과 감정 정치, K-콘텐츠 세계화와 플랫폼 환경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함으로써, 〈흑백요리사〉 시즌1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마련한다. III장에서는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계급 서사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떠한 구조와 정동을 통해 조직되는지, 곧 흑/백 이분법과 계급 기호화, 경쟁 포맷과 공정성 내러티브, 감동 서사와 정동의 재배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IV장에서는 K-콘텐츠 전략으로서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적 계급 감수성의 번역 가능성, 넷플릭스 플랫폼과 세계화 장치, 글로벌 수용과 K-콘텐츠 브랜드화의 양상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K-콘텐츠 연구에서 계급·정동·플랫폼을 통합하는 분석 틀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서 시즌2와 타 요리 예능과의 비교 연구, 해외 수용자 대상 실증 연구, 젠더·인종·이주를 포함한 교차적 관점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한다.

2. 계급 서사, 정동, K-콘텐츠 세계화

2-1. 계급 서사·언더독 내러티브와 정동 정치

현대 대중문화에서 계급은 더 이상 노골적인 신분 표지나 계급명어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생활양식, 말투, 몸짓, 소비 취향, 교육 수준, 노동

환경 등 다양한 기호들이 결합된 일종의 “스타일화된 삶의 패턴”으로 재현된다. 드라마와 예능, 영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들은 이러한 기호들을 조직하여, 어떤 인물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주체”로, 또 다른 인물은 “늘 뒤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배치하는 계급 서사를 구성한다. 특히 서바이벌·경쟁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의 과거 이력과 현재의 처지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계급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그 차이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의지와 재능, 노력에 따라 극복 가능한 과제로 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⁷⁾ 이때 계급은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분석 범주라기보다, 극적 긴장과 감정 몰입을 생산하는 서사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계급의 현실은 서바이벌의 규칙 속으로 흡수되어, “경쟁의 장에 공정하게 입장한 개인들”이라는 전제 아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자연스러운 구분처럼 재구성된다.

이러한 계급 서사와 가장 밀접하게 결합하는 구조가 바로 ‘언더독’ 승리 서사이다. 언더독 내러티브는 출발선에서 열세에 놓인 인물이 각종 불리한 조건을 딛고 점차 성장하여, 마침내 강자를 이기거나 인정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 내러티브는 대개 세 가지 층위에서 감정을 동원한다.⁸⁾ 첫째, 출발점의 열세와 상처, 실패를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언더독 인물과 정서적 동일시 혹은 연민의 감정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반

7) 현대 대중문화에서 계급이 노골적인 신분 표지나 계급명이라기보다 생활양식·말투·몸짓·소비 취향·교육 수준·노동 환경 등이 결합된 “스타일화된 삶의 패턴”으로 재현된다는 논의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취향·아비투스 이론에 기대어 설명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계급 집단이 공유하는 취향과 일상 습속이 곧 사회적 위계와 구별 짓기의 실천적 형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기호의 배열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주체”와 “늘 뒤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려내는 상징적 질서를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김홍중, 『서바이벌리스트 모더니티』, 이음, 2024, 368쪽.

8) 강금량·정성은, 「약자 성공담의 정서적·인지적 반응과 소셜미디어에서의 공감과 공유」, 『한국언론학보』 제67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23, 117-152쪽.

복되는 도전과 근소한 실패, 주변 인물과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배치하여, 불안·분노·좌절·응원의 감정을 순환시키면서 감정적 투자와 몰입을 심화시킨다. 셋째, 최종 국면에서 예상 밖의 승리 혹은 도덕적 승리를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감정을 카타르시스로 수렴시킨다. 이때 승리는 개인의 노력과 진정성, “포기하지 않음”의 덕목으로 설명되며, 구조적 제약이나 계급적 조건은 배경으로 희미해진다. 언더독 서사는 따라서 계급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차이를 개인 서사의 극복 가능성 안으로 봉합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계급은 모순의 이름으로 호출되기보다는 감동적인 성공담을 위한 출발선의 불리함으로 소비되고, 불평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박수와 눈물을 위한 서사적 장치로 전환된다. 〈흑백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가 언더독 내러티브와 결합할 때, 계급 서사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감정 동원과 정당화의 기제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정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감정의 동원은 개인 내면의 심리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동은 신체와 신체, 주체와 대상, 개인과 집단 사이를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힘의 흐름으로 이해되며, 언어화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감각, 분위기, 긴장, 기대감 같은 차원을 포함한다. 특정한 순간에는 분노, 슬픔, 기쁨, 연민과 같은 명명 가능한 감정으로 응고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무엇을 옳다고 여기게 할 것인지, 누구를 돕고 누구를 비난해야 할 것인지, 무엇에 공감하고 무엇을 혐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⁹⁾ 이른바 “감정 정치”는 제도와 정책,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과 배열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변형된다는 통찰을 전제

9)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어문연구』 제95집, 어문연구학회, 2018, 219-240쪽.

로 한다.

경쟁·오디션 포맷은 이러한 감정 정치가 가장 집약적으로 작동하는 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 포맷에서 시청자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참가자의 서사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특정 인물에게 지지·동일시·거부의 감정을 분배하는 주체로 구성된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과거와 현재를 선택적으로 편집하여 “불우한 성장 서사”, “천재적 재능의 발견”, “오만한 강자와 겸손한 약자”와 같은 틀 안에 배치하고, 여기에 음악, 클로즈업, 슬로 모션, 자막과 내레이션을 덧붙여 감정의 방향을 정교하게 가이드한다. 탈락과 합격의 순간은 의도적으로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되며, 눈물과 포옹, 자기 반성의 독백은 시청자에게 연민과 감동, 혹은 안도감을 선사한다.¹⁰⁾ 이 과정에서 경쟁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을 통하여 정당화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한다. “열심히 했으니 받아들일 수 있다”, “실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수용은 이미 감정적으로 조율된 상태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요리와 같은 일상의 감각적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는 예능에서 정동의 조직 방식은 한층 복합적이다. 맛을 본 심사위원의 표정 변화, 신체의 미세한 반응,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다”와 같은 과장된 언표는 시청자의 미각 상상력을 자극하며, 화면 밖의 신체에까지 정동을 확장시킨다. 동시에 출연자의 가난, 실패, 가족사가 전면 배치되면서, 그들이 만든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인생을 건 한 접시”로 인식되도록 구성된다. 평가 장면은 곧 출연자의 삶과 존엄을 판가름하는 자리로 과장되고, 승자와 패자의 구분, 탈락의 수용, 공정성에 대한 동의는 감정적 차원에서 확보된다. 이 과정에서 계급 불평등이나 구조적 제약은 감정 정치의 장치들 속에서

10) 류용재·박진우, 앞의 글, 139-165쪽.

희미해지고, 대신 “감동적인 도전과 성장”이라는 정동 구조가 시청 경험을 지배하게 된다. 〈흑백요리사〉에서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는 바로 이러한 정동의 조직 방식과 결합할 때, 계급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함과 동시에, 감동 서사 속으로 재흡수될 위험을 함께 품게 된다.

2-2. K-콘텐츠 세계화와 플랫폼 환경

K-콘텐츠의 세계화는 단순히 한국에서 제작된 텍스트가 해외로 수출되는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작품들을 느슨하게 엮어내는 “K-콘텐츠 세계관” 전략이다. 특정 장르·미학·정동의 조합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시청자에게 “한국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는 서사적·감각적 패턴이 축적되고,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처럼 작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때 K-콘텐츠는 극심한 입시 경쟁, 계급 격차, 가족주의, 군대와 같은 한국 특유의 제도와 정서를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를 보편적인 감정 구조와 결합하여 글로컬(global)한 서사로 변환한다.¹¹⁾ 다시 말해 특정한 한국적 조건이 서사의 배경과 장치로 유지되는 동시에, 시청자가 익숙하게 소비해 온 경쟁·로맨스·스릴러·가족 드라마 등의 장르 문법과 결합함으로써, “낯설지만 이해 가능한” 혼종적 서사 구조가 형성된

11) K-콘텐츠의 세계화를 단순한 수출 현상이 아니라, 개별 작품들을 느슨하게 엮어내는 “K-콘텐츠 세계관” 전략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은, 특정 장르·미학·정동의 조합이 반복되면서 시청자에게 “한국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는 서사적·감각적 패턴이 축적되고,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처럼 작동한다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K-콘텐츠는 극심한 입시 경쟁, 계급 격차, 가족주의, 군대와 같은 한국 특유의 제도와 정서를 소재로 삼되, 이를 보편적인 감정 구조와 결합하여 글로컬(global)한 서사로 변환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배기형·김치호, 「K-드라마의 개념화와 장르화 가능성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227-249쪽.

다. “흑수저 vs 백수저”와 같은 계급 기표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 속에서 번역 가능성을 획득한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비롯된 고유한 은유이지만, 불평등과 경쟁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쉽게 공명 가능한 언더독/강자 구도의 한 변주로 수용된다.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구조, 추천 알고리즘, 번역·현지화 시스템과 긴밀히 맞물린다. 넷플릭스는 장르·분위기·국가·시청 패턴 등을 교차하는 카테고리화 레이블을 통해, 개별 작품을 특정한 “기대의 틀” 속에 배치한다. <흑백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쇼”, “경쟁”, “요리”, “휴먼 드라마” 등 여러 키워드 아래 분류되면서, 시청자가 이미 익숙한 글로벌 포맷의 한 변종으로 인식되도록 안내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과거 시청 기록과 유사 콘텐츠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을 노출시키며, 이렇게 형성된 추천의 집합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와 정체성으로 소비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한다.¹²⁾

자막·더빙·소개 문구와 같은 번역·현지화 장치는 로컬한 언어와 정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흑수저”, “이모님”, “갑/을” 등 한국적 기표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도 하고, 설명적 번역이나 유사한 현지 표현으로 치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층위를 부여하기도 한다.¹³⁾ 이처럼 플랫폼 구조와 번역·현지화는 K-콘텐츠 세계관이 실제로 어떻게 읽히고, 어느 지점에서 탈맥락화·재맥락화되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OTT 시대의 예능 포맷은 이러한 플랫폼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유통 조건을 부여받는다. 지상파·케이블을 중심

12) 코리 바커·마이크 비아트로스키 외, 앞의 책, 480쪽.

13) 김해연·조민성,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영상자막에서 나타난 음식명 번역 전략 연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대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9권 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5, 423-456쪽.

으로 한 과거 유통 구조에서는 편성 시간대, 규제, 광고주 이해관계가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에 직접적 제약을 가했다.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에서는 심의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편성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시즌 단위 일괄 공개 전략이 보편화되어 있다.¹⁴⁾ 이로 인해 예능 포맷은 더 자극적인 갈등 연출, 더 강도 높은 언어와 감정 표현, 더 복잡한 세계관 설정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다. 동시에 글로벌 시청자를 상정한 제작은 자국 시청자에게만 통하는 내적 농담이나 지역적 맥락 대신, 경쟁·성장·감동·치유와 같은 보편적 감정 구조를 중심으로 삼도록 압박한다.

요리 예능의 경우, 음식이라는 감각적 코드가 문화적 장벽을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되면서, 계급·노동·지역성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은 감동적인 인생 서사와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미장센 뒤로 후퇴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OTT 시대 예능의 글로벌 유통 조건은 한편으로 로컬한 현실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를 보편적 서사와 정동의 틀 안에 포섭하려는 압력을 행사한다. 〈흑백요리사〉 시즌1의 “흑수저 vs 백수저” 서사는 바로 이 모순적인 조건 속에서 세계화되는 K-콘텐츠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읽힐 수 있다.

14) 노영은·류용재, 「초국적 문화산업이 직조하는 한류의 문화정치: K-콘텐츠를 전유하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혼종화 전략」, 『언론과 사회』 제32권 4호, 언론과사회학회, 2024, 63-114쪽.

3. “흑수저 vs 백수저” 서사의 구조와 정동

3-1. 흑/백 이분법과 공정성 경쟁 포맷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구도는 단순한 제목의 장치에 머물지 않고, 프로그램 전반을 관통하는 기호 체계로 기능한다. ‘흑수저’와 ‘백수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통용되는 세대 담론과 계급 은유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이를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언어적 코드로 재배열한다. ‘흑수저’는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 제도권 엘리트 경로 바깥에서 기술을 연마해 온 “재야의 고수”와 겹쳐지며, ‘백수저’는 이미 명성을 얻은 셰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오너, 미식 산업 상층부에 속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 계급 구분은 출연자의 이력 소개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식당 규모, 경력 연수, 수상 이력, 손님 층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강조되면서,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흑/백 구도를 출발선의 불평등 혹은 현실 격차의 시각적 약호로 읽어들이게 된다.¹⁵⁾

이러한 차이는 언어적 코드에서도 명확히 재현된다. 프로그램은 ‘흑수

15)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가 단순한 제목의 장치가 아니라, 출연자 이력 소개, 팀 구분, 공간 배치, 시각·언어적 코드 전반을 관통하는 계급 기호 체계로 작동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재야 셰프 집단을 ‘흑수저’, 이미 명성과 자본을 축적한 파인다이닝 셰프 집단을 ‘백수저’로 호명하는 방식이, 출발선의 불평등을 드라마적 긴장과 감동을 생산하는 장치로 전환한다는 분석은 강대한·정운갑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대 구성과 시각적 대비, 팀 호칭과 내레이션이 계급 구분을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과 결부시켜 시청자의 직관적 이해를 유도한다는 점은 무대 재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강조된다. 강대한·정운갑, 「‘수저계급론’과 ‘개천에서 용 나는’ 자수성가 성공 신화 간의 충돌: 서바이벌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6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103-142쪽.

저 셰프’, ‘백수저 셰프’라는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의 이름 앞에 계급적 수식어를 상징처럼 부착한다. 이 호칭은 출연자 소개 자막, 내레이션, 진행자의 멘트에 걸쳐 일관되게 등장하며, 때로는 농담과 도발의 소재로 변주되기도 한다. “흑수저의 반란”, “백수저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표현은 계급적 위치를 경쟁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계급 구분 그 자체를 일종의 게임 규칙처럼 자연화한다. 이때 ‘흑수저’는 단지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불리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 “언더독의 상징”으로 긍정적 감정을 동원하는 기표로 작동하고, ‘백수저’는 기득권의 안락함과 동시에 지켜야 할 명예, 도전을 받는 위치의 긴장감을 함께 부여받는다.¹⁶⁾ 이처럼 흑/백 이분법은 구조적 불평등을 고발하는 비판적 범주라기 보다, 감정과 드라마를 생산하는 서사적 장치로 재구성된다.

시각적 구성에서 흑/백 이분법은 주방 세트, 조명, 동선 설계, 의상 디자인을 통해 더욱 강하게 기호화된다. 두 팀의 주방은 색채와 배치에서부터 뚜렷이 구분되며, 검정과 흰색이라는 극단적 대비는 단순한 미장센을 넘어 “서로 다른 세계”를 상징하는 장식 언어가 된다. 흑팀 공간에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톤의 배경, 금속성 재질의 소품, 밀집된 구조가 배치되어 치열한 노동과 생존 경쟁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백팀 공간에는 밝은 조명, 여유로운 작업대, 세련된 인테리어가 부여되어 안정된 위계와 세련된 취향을 상징한다. 출연자와 심사위원의 의상 역시 이러한 대비를 뒷받침한다. 흑팀 셰프들은 검정 계열의 유니폼이나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고, 백팀 셰프들은 화이트 셰프 코트나 수트에 가까운 차림으로 등장함으로써, 동일한 “요리 노동”이 서로 다른 상징적 위상과 미적 코드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호칭과 좌석 배치 또한 계급 구획을 미세하게 강화하는 요

16)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 343쪽.

소로 기능한다. 백수저 셰프들이 2층 관람석이나 상단 공간에서 흑수저 팀의 조리 과정을 내려다보는 구도, 심사와 평가의 순간에 권위적 위치를 점하는 시선 배치는 화면 구성 자체를 통해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의 위계를 시각화한다.

이러한 시각·언어적 기호 체계 위에서 <흑백요리사> 시즌1의 경쟁 포맷은 표면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겨루는 공정한 대결을 표방한다. 각 에피소드는 제한된 시간, 공통 재료, 동일한 주제-특정 식재료, 특정 국가의 요리, 인생을 담은 한 접시 등-를 제시하며 시작된다.¹⁷⁾ 이러한 설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강화하지만, 실제로는 출연자들의 경력, 레스토랑 규모, 고객층, 요리 스타일의 차이에 따라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비대칭적 환경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은 카메라와 자막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구조적 조건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불리한 조건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가”라는 개인의 역량과 태도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의 장을 공정한 게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방식 역시 공정성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블라인드 시식, 다수의 심사위원, 점수 합산과 같은 장치는 “오로지 맛과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인상을 제공한다. 심사위원과 출연자 간 사전 관계를 차단하고, 요리를 접하기 전까지 어느 팀의 작품인지 밝히지 않는 연출은 계급적 위계나 명성, 선입견이 배제된 이상적 심사 환경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사 장면의 대사와 편집을 면밀히 보면, 평가는 단지 미각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 요리에 당신의 이야기가 담겼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임했는가”와 같은 정동적·도덕적 기준과 결합되어 있다. 이때 요리의 완성도는 참가자의 성실함, 진정성, 태도와 같은 인

17) 남승석·한예진, 앞의 글, 123-160쪽.

격적 속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심사 결과는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더 간절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건 사람”의 승리로 서사화된다.

탈락 구조는 이러한 공정성 내러티브를 절정으로 밀어 올리는 순간이다. 각 라운드의 탈락자는 대개 미션 실패의 원인, 자신의 부족함, 동료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독백을 통해 퇴장한다. 제작진은 이 장면을 클로즈업, 슬로 모션, 잔잔한 배경음악과 결합하여, 탈락이 불의(不義)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실패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자기 성찰과 성장의 계기로 재코드되며, “다음에는 더 노력하겠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출연자의 언술은 패배의 경험을 다시금 개인의 미덕과 책임으로 수렴시킨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은 제도나 규칙의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점검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고 노력한 자는 결국 인정받는다’ 도덕담론으로 귀결된다.¹⁸⁾ 그 결과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계급 구도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승패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각 개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창의적으로 요리에 임했는지의 문제로 정리된다. 계급적 불평등, 제도적 격차, 자본의 위계는 서사 배경으로 후퇴하고, 대신 개인화된 공정성 담론이 시청자의 감정과 판단을 지배하게 된다.

3-2. 감동 서사와 정동 재배열: ‘계급을 넘어선 인간 존엄’

〈흑백요리사〉 시즌1의 서사 전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은 참가자 개인의 삶의 이력이 단순한 배경 설명을 넘어, 감정 동원을 위한 핵심 자

18) 류용재·박진우, 앞의 글, 139-165쪽.

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은 참가자 소개, 인터뷰, 회상 장면을 통해 그들의 가난, 사업 실패, 가족 갈등, 이민과 귀환, 재기의 시도 등을 반복적으로 클로즈업한다. 이때 가난과 실패는 구조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분석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발판”, “포기하지 않고 버텨 온 시간”이라는 자기 서사의 일부로 제시된다.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배운 것 없이 몸으로 버텨 온 사람”, “수차례 망했지만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설명하고, 제작진은 이 고백들을 눈물, 떨리는 목소리, 가족 사진 등의 시청각적 요소와 결합해 시청자의 연민과 응원을 촉발한다. 이렇게 각자의 열악한 조건과 실패의 경험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전환된다. 가난과 실패는 불평등을 고발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동을 보장하는 서사의 장치가 된다.

이러한 감정 동원은 갈등과 대결의 서사를 존중과 우정의 정동으로 재배열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 시즌 초반부에서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는 명확한 대립의 축으로 제시된다. 제작진은 도발적인 멘트와 자막, 팀 간 견제 발언, 심사 결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부각하여 시청자가 어느 한쪽에 정서적으로 가담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특히 중반 이후에는 상대 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요리를 진심으로 평가하며, 탈락자에게 아쉬움과 존경의 말을 건네는 장면들이 증가한다. 팀 내부 갈등 역시 종국에는 화해와 이해의 서사로 수렴된다. 초반의 대립과 긴장은 단순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긴강한 자극”으로 재해석되며,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 라이벌에서 “함께 요리 세계를 지탱해 온 동료”의 정동으로 전환된다. 갈등과 대결은 시청자의 흥분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기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초월되는 정동의 재배열을 통해

통합된다.¹⁹⁾

이러한 정동의 재배열이 지향하는 최종 지점은 “계급을 넘어선 인간 존엄”이라는 메시지의 형성이다. 시즌 후반부와 결승전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은 더 이상 흑/백의 계급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각 참가자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인간”으로 조명한다. 승자와 패자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계급의 승리나 패배로 설명되지 않고, “그날 더 잘 요리한 사람”과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사람”의 차이로 정리된다. 심사위원과 진행자는 패자에게도 “훌륭한 셰프”,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동료”라는 언어로 존엄을 부여하며, 시청자 역시 이 감정 흐름 속에서 흑/백의 대비를 넘어서 모든 참가자를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도록 이끌린다.²⁰⁾

이때 “계급을 넘어선 인간 존엄”은 계급 현실을 해체하는 비판적 인식의 결과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과 감동적인 서사가 만들어 낸 정동의 귀결로

19) 여기서 말하는 감정 동원은 단순히 참가자의 눈물이나 극적인 리액션을 부각하는 차원을 넘어, 시즌 전반의 관계 구도를 재배열하는 서사 전략을 가리킨다. 시즌 초반부에서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는 도발적 멘트, 자막, 팀 간 견제 발언, 심사 결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통해 뚜렷한 대립의 축으로 제시되며, 시청자는 어느 한쪽에 정서적으로 가담하도록 유도된다. 그러나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상대 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요리를 진심으로 평가하는 장면, 탈락자를 향해 아쉬움과 존경의 말을 건네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초기의 적대적 정동은 점차 동료애와 상호 존중의 정동으로 치환된다. 이는 초반의 갈등과 긴장이 단순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더 좋은 요리를 위한 건강한 자극”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이며,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가 라이벌 구도에서 “함께 요리 세계를 지명해 온 동료”라는 서사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갈등과 대결은 시청자의 흥분과 긴장을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한편,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귀결되는 정동의 재배열 속에서 통합되며, 이는 프로그램이 계급 대립보다는 인간적 연대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면화하도록 만드는 핵심 서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최문경·박지훈·박진선, 「경쟁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한국 리얼리티오디션 프로그램: SBS 〈키스 & 크라이〉의 제작환경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4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3, 590-618쪽.

20) 위의 글, 590-618쪽.

제시된다. 출발점에서 “흑수저 vs 백수저”는 날카로운 계급 은유로 기능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는 “결국 모두가 존경받을 인간”이라는 인도주의적 메시지 아래 통합된다. 이는 한편으로 참가자 개개인의 존엄을 긍정하는 효과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차이가 감동 서사 속에서 탈정치화·비가시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²¹⁾

결국 <흑백요리사>의 감동 서사와 정동의 재배열은 공정성 담론을 내면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도전과 성숙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을 통해, 계급 현실을 감정 정치의 장치 속에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평적 함의를 제공한다.

4. K-콘텐츠 전략으로서의 세계화: 플랫폼·번역·수용

4-1. 한국적 계급 감수성과 넷플릭스 플랫폼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시기에 돌출한 유행어를 넘어,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이동성의 봉쇄를 체감하는 세대의 정서를 집약한 계급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자산 규모, 교육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상속된 자원이 개인의 삶의 궤적을 결정한다는 냉혹한 인식을 일상 언어의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흑수저는 단순히 가난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계급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된 현실 속에서 출발선 자체

21) 조돈문, 앞의 책, 356쪽.

가 불리한 이들의 집단적 위치를 가리키는 기호로 기능하고, 금수저·백수저는 축적된 자본과 특권을 체화한 계급을 상징하며, 이들에 대한 분노와 부러움, 냉소와 모방 욕망이 뒤엉킨 감정을 불러일으킨다.²²⁾

〈흑백요리사〉는 이러한 한국적 계급 감수성을 프로그램의 전면에 배치 하면서, “재야의 흑수저 셰프”와 “기득권의 백수저 셰프”라는 구도를 통해 수저 담론을 시각적·서사적 장치로 재맥락화한다. 이때 흑/백의 대비는 구체적인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불리한 출발선”과 “안정된 상층부”라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호출하는 상징적 약호로 작동한다.²³⁾ 출연자의 이력 소개, 식당 규모, 경력 연수, 수상 이력, 손님층의 차이는 “어디서 부터 출발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과 결부되어, 흑/백 구도를 출발선의 불평등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구성한다.

동시에 “흑수저 vs 백수저”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특수한 담론을 넘어서는 보편적 서사로 재가공된다.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때 한국식 수저 은유가 그대로 이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계급의 구체적 맥락을 상세히 해설하기보다는 언더독과 강자의 대결, 기회가 적은 자와 이미 성공한 자의 경쟁이라는 보다 일반화된 구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자막·더빙·소개

22) ‘수저 계급론’은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계급 이동성의 붕괴를 체감하는 한국 청년 세대의 정서를 응축해 드러내는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표현은 부모의 자산 규모, 교육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등 상속된 자원이 개인의 생애 궤적을 구조적으로 규정한다는 냉혹한 인식을 일상 언어의 차원에서 형상화한 것으로, 흑수저는 단순한 빈곤의 표지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불리한 집단적 위치를 가리키는 기호로 기능한다. 반대로 금수저·백수저는 축적된 자본과 특권을 체화한 계급을 상징하며, 이들에 대한 분노·부러움·냉소·모방 욕망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징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서 사용하는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계급 불평등과 세대 정서를 응축하는 사회적 기표를 가리키는 개념적 용어로 이해된다. 강대한·정운갑, 앞의 글, 103-142쪽.

23) 박권일, 앞의 책, 343쪽.

문구에서 “흑수저”는 disadvantaged, underdog, outsider 혹은 “숨은 고수들”, “신예 셰프들”과 같은 표현으로, “백수저”는 established chef, star chef 등으로 치환되면서, 한국 특유의 계급 감수성은 상당 부분 희석된 채 글로벌 미식 산업 전반의 위계 구조와 접속된다.²⁴⁾

이와 같은 번역·현지화 전략은 넷플릭스 플랫폼의 분류 체계, 카테고리, 썸네일, 소개 문구와 긴밀히 결합한다. 시청자가 <흑백요리사>를 처음 마주하는 지점은 대부분 검색창이 아니라 “지금 뜨는 콘텐츠”, “전 세계 TOP10 TV(비영어)”, “리얼리티 쇼”, “경쟁·서바이벌”, “요리·푸드”와 같은 카테고리 묶음 속이다. 이때 프로그램은 이미 익숙한 글로벌 포맷-셰프 경연, 서바이벌 리얼리티-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배치된다. 검정과 흰색의 강렬한 대비, 주방을 배경으로 한 셰프들의 표정, 불꽃과 연기를 과장한 썸네일 이미지는 “치열한 승부”와 “강렬한 감정”을 예고하고, “계급을 건 요리 전쟁”, “숨은 고수와 스타 셰프의 한판 대결”과 같은 소개 문구는 갈등·도전·계급성을 압축한 한 줄로 프로그램을 요약한다.²⁵⁾

이러한 플랫폼적 포지셔닝과 번역·현지화 장치를 통해 한국적 계급 감수성은 두 가지 수준에서 번역 가능성을 획득한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불평등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상화된 조건 아래, “불리한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언더독”이라는 도식이 단지 한국의 현실을 넘어 다수 시청자의 정서와 공명할 수 있는 서사적 틀이 된다는 점이다. 둘

24) “흑수저 vs 백수저” 담론이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된 불평등 감각과 결합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기호 체계로 재가공된다는 논지는, 사회비판적 K-콘텐츠가 국내 계급 현실과 세계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의 기호 전략을 분석한 광영신·류용재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 광영신·류용재, 「사회비판적 'K-콘텐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스카이캐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분열하는 기호들」, 『한국언론학보』 제66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22, 307-349쪽.

25) 노영은·류용재, 앞의 글, 63-114쪽.

째, 요리 서바이벌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소비되어 온 글로벌 포맷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삽입된 로컬한 계급 기표가 장르 문법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흑백요리사〉는 이 지점을 활용해, 수저 담론의 날카로운 사회비판적 요소를 전면에 드러내기 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한 셰프들이 기득권 셰프들에게 도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번역해낸다.²⁶⁾

그 결과 “흑수저 vs 백수저”의 한국적 맥락은 세계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탈맥락화되지만, 언더독 승리 서사와 감동의 정동 구조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소비 가능한 K-콘텐츠의 서사 자원으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변형은 한국적 계급 감수성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어떻게 상품화되고, 어떤 지점에서 그 비판적 날이 무뎠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2. 글로벌 수용과 K-콘텐츠 브랜드화

〈흑백요리사〉 시즌1에 대한 해외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단지 “또 하나의 요리 서바이벌”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K-드라마·K-팝이 구축해 온 이미지와는 다른 차원의 “K-계급 서사”이자 K-예능의 얼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사회 내부의 수저 담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한 언더독 셰프들이 이미 이름을 얻은 셰프들과 맞붙는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후 전 지구적으로 공유되는 경쟁과 불안의 정서를 쉽게 읽어낸다. 이때 K-콘텐츠는 한류 스타, 화려한 로맨스, 비극적 가족 서사에

26) 배기형·김치호, 앞의 글, 227-249쪽.

한정되지 않고, 계급·노동·불평등을 강한 장르성과 결합하여 서사화하는 문화적 기표로 확장된다. 요리 예능이라는 장르 특성상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음식 이미지와 치열한 주방 풍경은 국가를 초월해 즉각적인 감각적 쾌락을 제공하고, 그 위에 얹힌 “계급을 건 전쟁”, “재야의 고수들의 반란”과 같은 표현은 K-콘텐츠가 제공하는 독특한 긴장감과 밀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²⁷⁾ 그 결과 <흑백요리사>는 K-콘텐츠 브랜드 안에서 “K-요리 예능”, “K-경쟁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하위 범주를 가시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

이러한 글로벌 수용 과정에서 셰프와 출연자들은 더 이상 특정 식당의 운영자나 국내 미식계의 전문가에 머물지 않고, K-콘텐츠의 얼굴이자 플랫폼 시대의 스타로 재브랜딩된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출연 셰프들이 출간하는 레시피북, 해외 팝업 레스토랑, 협업 메뉴 런칭, 각종 SNS·유튜브 채널 출연 등은 모두 2차·3차 콘텐츠의 형태로 확장되며, <흑백요리사>라는 IP는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가시화하는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동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주류·식품 업체와의 콜라보 제품은 프로그램 속 요리와 셰프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일상적인 소비 행위를 “한 번쯤 먹어 보고 싶었던 K-예능 속 한 접시”와 연결시키는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유

27) <흑백요리사> 시즌1에 대한 해외 수용 양상은 넷플릭스 플랫폼의 이용자 평가, 유튜브·SNS 댓글, 해외 온라인 리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또 하나의 요리 서바이벌 포맷이라기보다,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한 언더독 셰프들이 이미 이름을 얻은 셰프들과 맞붙는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후 전 지구적으로 공유되는 경쟁과 불안의 정서를 서사화하는 텍스트로 소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흑백요리사>는 기존 K-드라마·K-팝이 구축해 온 이미지에 더해, 계급·노동·불평등을 강한 장르성과 결합해 전면에 부각하는 “K-계급 서사”이자 K-예능의 새로운 얼굴로 기능한다. 특히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음식 이미지와 치열한 주방 풍경을 국가를 초월한 감각적 쾌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급을 건 전쟁”, “재야의 고수들의 반란”과 같은 수사가 더해지면서, K-콘텐츠 특유의 높은 정동 밀도와 긴장감이 강하게 표지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은경, 앞의 글, 183-215쪽.

튜브 클립과 SNS 짧은 영상들은 극적인 평가 장면,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유머러스한 상호작용을 잘라내어 전 세계 타임라인 위로 흩뿌려지고, 알고리즘은 이를 다시 K-콘텐츠·요리·리얼리티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되돌려 보낸다.²⁸⁾ 이와 같은 확산 구조 속에서 〈흑백요리사〉는 개별 시즌 종료 이후에도, 세프·출연자의 스타-브랜딩과 결합된 살아 있는 브랜드로 기능한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TOP10 지표, 추천 알고리즘, 시청 데이터는 이러한 브랜드화 과정을 수치화하고 다시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특정 기간 동안 〈흑백요리사〉가 비영어권 TV 부문 TOP10에 진입하거나 상위권을 유지하면, 그 사실 자체가 곧 홍보 문구와 뉴스 제목으로 재가공되어 또 다른 시청을 자극하는 홍보 자원이 된다. 추천 알고리즘은 경쟁 리얼리티, 요리 프로그램, 서바이벌 오디션 등 유사한 정동 구조를 지닌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에게 〈흑백요리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이러한 알고리즘적 추천의 집합은 “K-콘텐츠=치열한 경쟁과 강렬한 감정이 결합된 포맷”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시청 데이터는 다시 플랫폼과 제작자에게 피드백되어 시즌2 기획, 유사 포맷 개발, 타 장르와의 교차 기획에 활용된다.²⁹⁾

궁극적으로 〈흑백요리사〉 시즌1이 K-예능 세계관에 기여한 위치는 한국 예능이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재정의해 가는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시금석이라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버라이어티 중심 K-예능이 보여 주던 즉흥성과 일상성 대신, 분명한 경쟁 구조와

28) 나은경, 앞의 글, 183-215쪽.

29) 윤송이·김치호, 「OTT 플랫폼과 방송사 간 규제 불균형에 따른 콘텐츠 차이 연구: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2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25, 101-114쪽.

계급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감동과 인간 존중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정동 구조를 택한다. 이는 해외 시청자에게 “K-예능은 웃음과 장난만이 아니라, 드라마 못지않은 서사성과 감정의 깊이를 지닌 장르”라는 인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계급·불평등 같은 민감한 소재를 어떻게 상품화 가능한 세계관 안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³⁰⁾ 이러한 의미에서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K-예능 세계관의 지형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K-계급 서사”라는 새로운 브랜드 축을 가시화한 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계급 서사를 매개로 한 K-콘텐츠 세계화 전략과 향후 전망

본 논문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1을 대상으로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계급 서사가 어떠한 구조와 정동의 조직 방식을 통해 구성되며, 그 서사가 K-콘텐츠 세계화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계급 서사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가 단순한 제목이나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출연자 소개, 시각적 구성, 공간 배치, 호칭과 언어 사용, 경쟁 규칙 전반을 관통하는 기호 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흑수저’는 불리한 조건, 재야, 가난, 실패의 이력과 연결되며, ‘백수저’는 제도권 성공, 명성, 상층부 미식 산업과 연동되는 상징적 위치로 재현된다.³¹⁾ 그러나 이러한 계급 구분은 현실 구조에 대

30) 광영신·류용재, 앞의 글, 307-349쪽.

31) 남승석·한예진, 앞의 글, 123-160쪽.

한 비판적 인식으로 나아가기보다, 경쟁의 긴장과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재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정동 정치의 차원에서 볼 때, 〈흑백요리사〉의 계급 서사는 경쟁 포맷과 결합하여 특유의 감정 구조를 조직한다. 미션 구성과 평가 방식, 탈락 구조는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의 공정한 승부”라는 인상을 제공하면서도, 실제로는 출발선의 불평등과 자원 격차를 개인의 역량과 태도 문제로 환원하는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블라인드 시식과 다수의 심사위원, 점수 합산은 제도적 공정성을 연출하는 장치로 작동하지만, 심사의 언어와 편집은 요리의 완성도를 참가자의 진정성, 간절함, 인격적 미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³²⁾ 그 결과 승패는 구조적 환경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인생을 걸고 임했는가’라는 개인화된 기준의 귀결로 제시된다. 가난과 실패, 재도전의 서사는 불평등을 폭로하는 계기가 아니라 시청자의 연민과 응원을 촉발하는 감동 서사의 자원으로 소비되며, 초반부의 갈등과 계급 대립 역시 시즌이 진행될수록 존중과 우정, 동료애의 정동으로 재배열된다. 이 과정을 통해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날카로운 계급 구분은 최종적으로 “계급을 넘어선 인간 존엄”이라는 인도주의적 메시지 아래 봉합되고, 계급 현실은 감동의 서사 속에서 탈정치화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계급 서사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환경과 결합하면서 K-콘텐츠 세계화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수저 담론은 플랫폼 상에서 리얼리티 쇼, 경쟁, 요리, 휴먼 드라마와 같은 장르 카테고리, 썸네일, 소개 문구를 통해 언더독 vs 강자의 대결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구도로 번역된다. 자막·더빙·현지화 과

32) 류용재·박진우, 앞의 글, 139-165쪽.

정에서 “흑수저”, “백수저”와 같은 표현은 직역되기보다는 언더독, 스타 셰프, 무명 셰프 등으로 치환되며, 계급의 구체적 맥락은 상당 부분 중화된다.³³⁾ 그 대신,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셰프가 기득권 셰프에게 도전해 인정받는 서사는 신자유주의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불안과 경쟁의 감수성과 공명하는 감동 내러티브로 자리 잡는다.

글로벌 TOP10 지표와 추천 알고리즘은 이러한 서사와 정동의 구성을 수치화된 성과로 전환하며, 다시 이 성과를 홍보와 추가 노출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흑백요리사〉를 “K-요리 예능”, “K-계급 서사”의 성공 사례로 브랜딩한다.³⁴⁾ 요컨대 “흑수저 vs 백수저” 서사는 〈흑백요리사〉 시즌1 속에서 계급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거나 구조적 불평등을 분석하는 비판적 서사라기보다, 경쟁과 감동, 언더독 승리의 정동을 생산하는 서사적·시각적 장치로 작동하며, 넷플릭스 플랫폼의 세계화 장치와 결합하면서 한국적 계급 감수성을 보편적 감동 코드로 번역하는 동시에 그 비판적 날을 상당 부분 무디게 만든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 자체는 로컬한 계급 담론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회로 속에서 어떻게 상품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재맥락화·탈맥락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K-콘텐츠 연구와 계급·정동·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데 유의미한 분석 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K-콘텐츠 연구에서 계급·정동·플랫폼을 통합하는 분석 틀의 필요성과 의의를 분명히 드러낸다. 지금까지의 K-콘텐츠 연구가 대체로 텍스트 내부의 서사 분석이나 산업·정책 차원의 구조 분석에 치우쳐 있었다면, 〈흑백요리사〉의 사례는 계급 서사가 감정을 조직하는 정동의 층위, 이를 배포·증폭·통제하는 플랫폼의 기술적·산업적 장치와 긴밀

33) 배기형·김치호, 앞의 글, 227-249쪽.

34) 하준범·조희영, 앞의 글, 57-64쪽.

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 준다. “흑수저 vs 백수저”라는 계급 기호는 화면 속 인물의 대사나 장면 구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추천 알고리즘, 글로벌 랭킹, 클럽 유통, 콜라보 상품과 결합한 소비 구조 속에서 비로소 그 전면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계급을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로만, 정동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만, 플랫폼을 단지 유통 경로의 문제로만 분리하여 다루는 접근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얽힘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계급 서사가 어떤 정동 구조를 통해 감동과 동의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 정동이 플랫폼의 논리 안에서 어떻게 수치화·상품화·재배치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추적하는 분석 틀은 향후 K-콘텐츠 연구에 중요한 방법론적 자산이 될 것이다.³⁵⁾ 이는 또한 “세계화된 성공 사례”라는 찬사 뒤에 가려져 있는 탈정치화의 메커니즘을 가시화하고, 로컬한 불평등과 감수성이 글로벌 문화 자본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이론적 기여를 지닌다.

동시에 본 연구의 논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예능이 수행하는 문화·정치적 역할을 재고하게 만든다. 〈흑백요리사〉의 사례에서 보았듯, 한국 예능은 더 이상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가벼운 오락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세계 도처의 시청자에게 한국 사회의 계급 감수성, 노동 윤리, 경쟁 규범을 번역·전달하는 문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예능은 한편으로 언더독의 서사, 끈기와 성실함, “인간적인 감동”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 사회를 “치열하지만 따뜻한 경쟁 사회”로 상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³⁶⁾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불평등·노동 조건과 같은 문제를 감동의 서사로 흡수하고, 공정성 담론을 개인화된 도덕 코드로 전환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쟁 질서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예능은 이

35) 안미영, 앞의 글, 219-240쪽.

36) 광영신·류용재, 앞의 글, 307-349쪽.

처럼 상반된 잠재력을 동시에 내포한 채 문화·정치적 의미를 생산하는 장이 되며, K-콘텐츠는 단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수출 상품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과 감정, 욕망과 좌절을 어떻게 서사화하고 유통하는지에 관여하는 문화·정치적 행위자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³⁷⁾

아울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에 따라 향후 연구 과제가 도출된다. 우선, 본 연구는 <흑백요리사> 시즌1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계급 서사와 정동, 플랫폼 전략의 결합 양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기에, 후속 시즌 및 타 요리 예능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즌2가 제작·방영되는 국면에서 동일 포맷이 어떻게 변형·조정되는지, 계급 구도가 약화·강화되는지, 출연자 구성과 미션 설계, 편집 리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더불어 <셰프의 테이블>, <마스터셰프>, <파이널 테이블> 등 다른 국가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흑백요리사>의 계급·정동 구조가 K-콘텐츠 특유의 것인지, 글로벌 푸드 리얼리티 포맷이 공유하는 일반적 경향의 변주인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텍스트와 파라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에 의존하였기에 실제 해외 수용자의 경험과 해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흑백요리사>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실증 연구를 통해, “흑수저 vs 백수저” 구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이해되고 있는지, 계급·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되는지, 혹은 언더독 승리 서사의 익숙한 변형으로 소비되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언어권별 정동 수용 양상과 감동 포인트, 불편함의 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 역시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계급과 정동, 플랫폼이라는 세 축에 초점을 맞

37) 류용재·박진우, 앞의 글, 139-165쪽.

추는 과정에서 젠더, 인종, 이주, 지역성 등 교차적 관점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 요리라는 장르가 가정 내 돌봄 노동과 전문직 노동을 가르는 젠더화된 분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일부 출연자가 이민 경험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교차성 이론의 관점을 도입하여 계급·젠더·인종·이주의 축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거나 상쇄하며 〈흑백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과제들을 염두에 둘 때, 본 논문은 〈흑백요리사〉 시즌1을 통해 드러난 “흑수저 vs 백수저” 계급 서사의 구조와 정동 정치, 그리고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세계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K-콘텐츠 연구에서 계급·정동·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비평적 틀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모은설 극본, 김학민·김은지 연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1, 넷플릭스, 2024.09.17.-2024.10.08.

2. 논문과 단행본

강금량·정성은, 「약자 성공담의 정서적·인지적 반응과 소셜미디어에서의 공감과 공유」, 『한국언론학보』 제67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23, 117-152쪽.

강대한·정운갑, 「수저계급론과 '개천에서 용 나는' 자수성가 성공신화 간의 충돌: 서바이벌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46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103-142쪽.

곽영신·류용재, 「사회비판적 'K-콘텐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스카이캐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분열하는 기호들」, 『한국언론학보』 제66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22, 307-349쪽.

김해연·조민성,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영상자막에서 나타난 음식명 번역 전략 연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대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9권 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5, 423-456쪽.

김홍중, 『서바이벌리스트 모더니티』, 이음, 2024.

코리 바커·마이클 비아트로스키 외, 『넷플릭스의 시대: 시간과 공간, 라이프스타일을 뛰어넘는 즐거운 중독』, 임종수 역, 팬덤북스, 2019.

나은경, 「'먹는 방송'과 '요리하는 방송' 음식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탐색: 텔레비전 먹방/쿡방 유행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뉴미디어 이용 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183-215쪽.

남승석·한예진, 「K-콘텐츠, 서바이벌 오디션 예능의 경쟁 서사와 공정성 환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33권 1호,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5, 123-160쪽.

노영은·류용재, 「초국적 문화산업이 직조하는 한류의 문화정치: K-콘텐츠를 전유하

“흑수저 vs 백수저” 계급 서사의 세계화-〈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시즌1을 중심으로 / 양진문 359

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혼종화 전략, 『언론과 사회』 제32권 4호, 언론과사회학회, 2024, 63-114쪽.

류용재·박진우,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에 침투한 신자유주의 경쟁 담론: 프로그램의 채택과 제작과정에 대한 생산자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24권 1호, 한국방송공사, 2012, 139-165쪽.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2021.

배기형·김치호, 「K-드라마의 개념화와 장르화 가능성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22, 227-249쪽.

안미영, 「현대문학 연구에서 정동 이론의 성과와 활용」, 『어문연구』 제95집, 어문연구학회, 2018, 219-240쪽.

윤송이·김치호, 「OTT 플랫폼과 방송사 간 규제 불균형에 따른 콘텐츠 차이 연구: 넷플릭스〈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25, 101-114쪽.

조돈문, 『불평등 이데올로기: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한겨레출판, 2024.

최문경·박지훈·박진선, 「경쟁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한국 리얼리티오디션 프로그램: SBS〈키스 & 크라이〉의 제작환경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 4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3, 590-618쪽.

하준범·조희영,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무대와 무대 재현을 통한 OTT 예능 콘텐츠의 수용자 관계성 연구」, 『콘텐츠와산업』 제7권 5호,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57-64쪽.

Abstract

The Globalization of the “Black Spoon vs. White Spoon” Class Narrative - Focusing on Season 1 of Culinary Class Wars: Black Spoon vs. White Spoon

Yang, Jin-Mun(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Season 1 of Netflix’s original reality-competition series Culinary Class Wars (Heukbaek Yoris a: Culinary Class War), examining how the “Black Spoon vs. White Spoon” class narrative is structured and how it articulates with the politics of affect to operate as a strategy for the globalization of K-cont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treats all episodes as primary texts and adopts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narrative analysis, discourse analysis, and platform analysis. In addition, it systematically reviews a wide range of paratexts, including interviews with producers and participants, promotional videos and posters, in-platform synopses and category placements, as well as YouTube clips and promotional materials released through official social media accoun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Black Spoon vs. White Spoon” configurat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provocative title but as a semiotic system that cuts across contestant profiling, visual contrasts, kitchen spatial arrangements, linguistic address and labeling, and the design of missions and evaluation rules. Through this system, the program renders unequal starting points visible while intensifying competitive tension and affective immersion. However, rather than developing into a critical recognition of structural inequality, the class distinction is increasingly reframed within an uplifting narrative that emphasizes the

underdog’s challenge and growth and reduces inequality to individualized competence and attitude under the moral sentiment that “those who work hard deserve respect.” As the season progresses, producers reorganize inter-team antagonism and conflict into a storyline of “healthy stimulation for better cooking” and camaraderie, thereby suturing sharp class antagonism with a humanitarian message of “human dignity beyond class” and depoliticizing and obscuring class realities. At the same time, Netflix’s platform apparatus—genre/mood categories, thumbnails and synopses, and translation/localization through subtitles and dubbing—reconfigures Korea-specific “spoon” discourse into a universal format of a culinary survival competition that combines an underdog-versus-elite-chef confrontation with intense rivalry and strong emotions, positioning it in the global market as a commodifiable K-class narrative and a K-variety brand.

In sum, this study elucidates how a locally situated class discourse is commodified and decontextualized within the circuits of platform capitalism, and how mechanisms of depoliticization operate through affect mobilization and fairness discourse. Furthermore, by proposing an integrative analytical framework that jointly considers class narrative, affect, and platform structures, the article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subsequent K-content research that links class, affect, and platform dynamics.

(Keywords: Netflix, Culinary Class Wars, class narrative, politics of affect, K-content globalization, platform capitalism)

논문투고일 : 2025년 12월 18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 2026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14일